두 손 맞잡은 가족들 "보고 싶었어요" "잘 지냈니"

5개월 만에 대면 면회 허용…광주 노인요양시설 가보니

코로나 음성 확인·백신 접종기록 확인 뒤 부모 만나
안부 물으며 울고 웃는 동안 30분 면회 시간 '훌쩍'
예약 못한 가족들 입구에서 '찰나의 만남' 갖기도

"아버지, 잘 지내셨어? 누가 왔는지 봐요. 아버지 딸이 왔어요."

1일 오전 11시께 요양시설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 광주시 북구 신안동 동행요양병원 1층에 있는 2개의 천막 면회실에는 부모를 직접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자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남편, 아들과 함께 80대 아버지를 찾은 신희숙(57)씨는 아버지의 양손을 꼭 붙잡고 "너무 보고싶었다"면서 반갑게 안부를 물었다. 신씨 가족 손에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과 젤리 등 간식과 고생하는 간병인과 병원 종사자를 위한 수박까지 선물이 한 아름 들려 있었다.

예약한 시간보다 일찌감치 면회실에 도착한 이들은 준비해 온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을 확인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을 의료진 앞에 보여준 뒤에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

신씨는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의 다리와 어깨, 목 등을 마사지해주며 "전화는 왜 잘 안받느냐", "식사는 얼마나 하시느냐", "먹고 싶은 건 없으시냐"고 밀린 질문을 쏟아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아버지 신영균(85)씨가 "밥도 잘 먹고 있고 가져다 준 반찬도 맛있게 먹고 있어"라고 답한 뒤에야 딸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딸은 손주를 가리키면서 누구인지 알겠냐고 물었고 아버지가 손주라고 답하자 울먹였다.

이에 앞서 홀로 어머니를 찾은 50대 여성 A씨는 대답을 잘 못하는 어머니께 "엄마 딸이 왔어요. 대답 좀 해줘요"를 수십 차례 외쳤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간신히 손을 들어 보이자 연신 울음을 터뜨렸다. A씨는 같이 오지 못한 가족들과 영상통화까지 하면서 어머니의 안부를 전했다.

이날 동행요양병원에서 대면 면회는 총 14팀이 진행됐다. 면회 한 건당 최대 4명에 시간은 30분으로 한정됐지만 이조차 예약이 쉽지 않다.

대면 면회를 예약하지 못한 자식들은 이날 오전에도 병원을 찾아 반찬과 간식거리를 병원에 전달하고 입구에서 받아가는 부모를 먼발치에서 나마 보기 위해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가 허용된 1일 오전 광주시 북구 동행재활요양병원에서 신영균 어르신이 딸과 사위의 손을 꼭잡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

병원도 대면 면회에 분주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한 팀의 면회가 끝날 때 마다 병원 관계자들은 면회실 의자와 테이블을 소독하고, 일정시간 환기를 시키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정부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30일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3주간 한시적으로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접촉 면회를 허용함에 따라 광주시도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시작된 면회 금지조치를 풀고 5개월여 만에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대면 면회를 허용했다.

이로써 광주의 요양병원 59곳, 노인요양보호시설 93곳 등 총 152곳에서 닫혔던 대면 면회의 빗장이 풀리게 됐다. 지난 29일 면회가 허용된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마자 대면 면회 예약이 가득찼다. 동행요양병원의 경우 29일 하루만에 오는 8일까지의 예약이 모두 찼다.

우선 이미 확진된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미확진자의 경우 입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17세 이하의 면회객은 2차 접종만 완료하면 된다.

또 최근 자가격리 해제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접종과 무관하게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면회는 기관별로 사전예약을 통해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은 4명까지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가 있어야 한다. 사전검사가 어려울 경우 현장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음성 판정이 나오면 된다.

면회는 독립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하며, 음식물·음료 섭취는 금지된다.

김미혜 동행요양병원 총괄이사는 "오랜만에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찾아주시는 가족 분들도 마스크 착용 등 면회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버스 노사 '평행선'… 내일 멈추나

오늘 3차 조정, 임금안 간극 커 합의 가능성 미지수…전남은 순천 중심 장기 파업 조짐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2일 3차 조정을 앞두고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자칫 버스노조 파업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1일 전국 자동차노동조합 연맹 광주지역 버스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사측과 자율교섭을 진행했으나 큰 입장차를 보였다.

버스노조 측은 8.5% 임금 인상, 정년 65세 연장,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의 기존 요구안에서 임금 인상률을 5%대로 하향했지만, 사측은 1.5%대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에서 3차 조정을 진행하지만, 사측이 1.5%대를 고집한다면 버스노조는 3일부터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버스노조측은 사측이 5%에 못 미치는 임금 인상률이라도 그에 갈음하는 다른 조건을 제시한다면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전면 파업, 부분 파업, 준법투쟁 등 쟁의 방식과 강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정해져 있지만 사측이 대응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미리 밝힐 수 없다는 게 노조측의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너무 소극적으로 나와 견해와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2일 밤 12시까지 마라톤 교섭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섭에 나서겠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파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은 순천지역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시내버스 파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노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2개 시군 중 구례는 조정 기일을 연장해 협상을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노사가 협의한 상태다.

시외버스 노사도 협상이 진행 중으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당장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공무원 '직장 갑질' 신고 늘었다

최근 2년 15건…전남도는 없어

최근 2년간 광주시 공무원들이 광주시에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갑질) 사건은 모두 15건으로 나타났다.

1일 직장갑질119는 정의당 이은주(비례대표) 국회의원과 함께 '17개 광역시·도 직장갑질 대책 평가 보고서'를 냈다.

광주시에는 자치구 및 시청 공무원이 제기한 갑질 사건이 2020년 4건, 2021년 11건 접수됐다. 이 중 2021년 신고된 4건은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 전남도에서는 신고 사례가 없었다.

유형별로는 폭언 8건, 따돌림·험담과 기타사항이 각각 2건, 부당인사, 강요, 차별이 1건씩이었다. 피해자 신분은 일반행정직이 8건(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직이 6건, 임기제가 1건이었다.

직장갑질119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위한 조례는 마련했지만, 상황 발생 시 지침이 되는 매뉴얼은 만들지 않았다"며 "전담 신고·지원센터 설치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 휴무·추모 동참해 주세요

광주시, 학교·기관·단체 대상 참여 독려…조기 게양 홍보도

광주시가 지방 공휴일인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휴무와 추모 동참을 독려하고 나섰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은 올해로 시행 3년째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 공휴일 시행 3년을 맞은 이번 5·18 기념일에 부분 휴무하기로 했다. 부서별 20%, 민원 및 코로나19 대응 부서는 50% 이상 출근한다. 5개 자치구도 근무 인원을 조정해 휴무에 참여한다.

광주시는 5·18 지방 공휴일이 공공은 물론 민간 영역까지도 확산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각급 학교, 기관·단체, 민간 기업에 공문을 보내 휴무 동참을 권고하고 있다. 시는 또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에 따라 5·18 추모 기간인 18일부터 27일까지 조기를 달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정신 광주시 5·18선양과장은 "이번 5·18지방 공휴일에는 일상의 업무를 잠시 멈추고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사적지 방문 등을 통해 1980년 오월의 아픔을 되새기고 5·18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라임 로비·횡령'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 확정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씨가 김 전 회장의 횡령 범행 전모를 충분히 인지했다는 점과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